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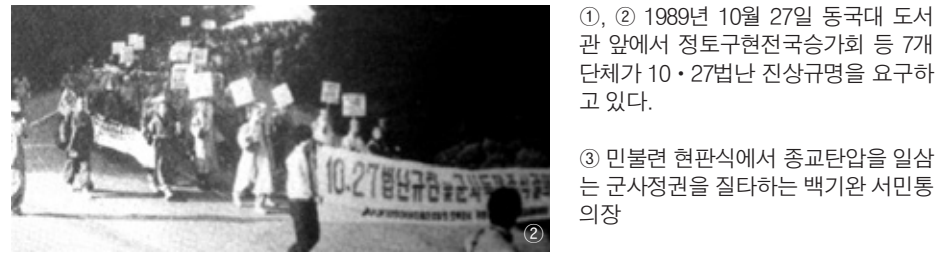
민중불교 운동으로 반독재 민주화에 기여



87년 조계사 집회에 참가하는 스님들을 연행하는 전경들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군의 49재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길거리에서 49재를 진행하는 지선 스님 모습



③ 1980년대 - 민중불교운동으로 대변

1970년대 청년불자들이 중심으로 불교중흥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실천됐다.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민중불교운동이 출현하는 밑거름이 됐다.

1980년대 대불련 활동은 '민중불교'를 표방하며 진행됐다. 민중불교운동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으로 본격화됐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을 겪으면서 형성된 불자들의 각성은 민중불교운동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1970년대 대불련 이념이 민족주체성의 확립이었다면 1980년대 대불련 이념은 '반외세 자주화'였다.

민중불교 태동기였던 1970년대 후반 불교계에서는 불교 아학, 근로자 법회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는 불교 개혁에 대한 대중의 실천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한 학생과 청년 불자, 소장스님들이 민중불교운동에 나섰다. 이 때 나타난 구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가 사원화(寺院化) 운동이었다.

사원화 운동은 사찰을 사회운동 근거지로 삼고 지역과 아학 등을 통해 불교가 지역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노력이었다.

사원화 운동이 한창일 무렵 대불련은 그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내부에서 변화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았다.

1980년대 초 대불련의 지방조직을 통해 서울·수원·원주·청주·전주·부산 등에서 운영되던 아학 활동이 그 예이다. 대불련은 '사회적 사원화'를 목표로 '불교야학 연합회'가 구성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사원화 운동은 제5공화국에 의해 지도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직접적 탄압을 받게 되면서 하향기를 맞는다. 사원화 운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이후 가장 탁월했던 실천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원화 운동은 1981년 7월 13~16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불교계 현안문제와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전국청년승가학우대회로 이어진다. 대회에서는 소장파를 주축으로 종단개혁을 위한 선립회, 교림회도 조직했다.

대불련은 1982년 자행된 '10·27법난과 이에 대한 규탄·항의'로 변화의 전기를 맞는다. 1982년 개최된 화랑대회는 '한국불교 1600년 대회'로 개최돼 진행됐다. 이 행사 이후 대불련의 운동 방향은 민중불교운동의 전파로 급격히 탈바꿈했다.

1983년 7월 17일 학인 스님, 청년불자 등 불교개혁 세력 200여 명이 부산 벼어사에서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회를 열고 청년불교도연합을 결성했다.

1984년 대불련은 10·27법난 규탄 성명을 시작으로 1986년 법불교도 차원의 '10·27법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항의시위 등을 전개했다.

1985년 이후 대불련은 '민중불교운동연합'을 창립하고 '해인사 승려대회'와 같은 불교운동에 동참하는 등 학생운동으로서 공개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중불교 창립은 불교내외의 사회변혁운동 세력이 하나로 합쳐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주도

불교야학·근로자 법회 활발

사찰을 사회운동 근거지로한

'사원화 운동' 높이 평가 받아

학인 스님들도 개혁활동에 힘보태

도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창립 1년이 채 못돼 지도부가 구속·수배돼 활동이 정체됐다. 대불련 활동은 1986~1987년 '민주헌법쟁취 불교운동본부', 1988년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 활동의 근간이 됐다.

민중불교를 대체할 만한 '정도구현승가회'가 설립된 것도 이즈음이다. 정도구현승가회는 1986년 6월 전국 승려 221명을 발기인으로 창립해 재가자 위주의 민중불교 운동을 재가자와 출가의 연합을 거쳐 출가승

로 바꾼 의미를 지닌다.

정도구현승가회는 1988년 6월까지 40여 회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현실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촉구하고 대중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도구현승가회의 활동은 1986년 9월 7일 2000여 승려가 모여 불교 자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천명한 '해인사 승려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를 통해 불교계는 불교관계 악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불교자주 운동과 사회민주화 운동이 틀어 아니며 함께 가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해인사 승려대회는 최초로 불교 자주를 선포한 사건으로 현대 불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다. 대회에서는 논의조차 금지 시 돼오던 10·27법난을 폭거로 규정하고, 정권과 불교계 수뇌부의 유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1988년 10월 27일 동국대에서는 '법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을 위한 불교도 실천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외부적인 활동의 변화와 함께 1980년대 대불련은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맞았다. 창립 초기부터 종단 유력 인사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활동을 펴온 대불련은 1980년대에 이르러 후원이 끊기는 위기에 처한다.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덕산 이한상 거사의 도미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단절은 대불련 활동의 또 다른 돌파구가 모색돼야 함을 알렸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구도부 활동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대불련 창립은 조계종단의 재정비와 보살불교, 기복불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교의 다각화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종단을 주도한 청담·성철·탄허·광덕 스님 등은 불교 중흥의 주역으로 대학생 불자들을 인식했다. 스님들과 대학생 불자들의 현실 인식으로 탄생한 것이 대불련 구도부다. 대불련 구도부는 대불련을 이끌던 핵심 학생들이 단순한 불교신행에 머무르지 않고 구도를 실증해 옮긴 조직체였다. 봉은사에 개설된 대학생 수도원은 1965년 9월부터 7년간 50여 학생들이 사찰에서 먹고 자며 수도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앞서 1965년 5월 구도부는 도선사에서 보현행원을 중심으로 범회를 열었다. 당시 구도부 일원으로 범회에 참가한 김선근 교수는 “일요일마다 오전 9시 도선사에서 청담 스님을 법사로 보현행원 범회를 열었다. 1주에 한번 씩 도선사에서 보현행원 품 독경, 108참회, 운력 등을 했고 미래 서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4차 대불련 수련대회 이후 13명의 구도부원들은 전국사찰의 선지식을 견진하는 구도행각에 나섰다. 이들이 새로운 구도의 길로 섰던 것은 대학생 수도원 입소였다.

1965년 9월 12일 대학생 4명과 지도교수 1명이 봉은사 사찰에 마련된 대학생수도에 최초로 입소했다. 당시 4명의 학생은 김기중(경희대 3년), 이진두(서울대 3년), 이용부(동국대 2년), 김선근(동국대 1년)으로 동국대 박성배 교수가 이들의 지도를 맡았다. 이들이 봉은사에 입소한 이유는 머리로 생각하는 불교가 아닌 가슴과 발로 행하는 실천불교를 위해서였다.

김선근 교수는 당시의 활동이 지금의 김선근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김천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성동고교를 다니며 종로 대각사 불미니회 학생회 활동을 했다. 당시 불미니회 총재였던 청담 스님

과의 인연이 이때 맺어진다. 청담 스님은 김선근 교수를 불교의 길로 이끌었다. 김선근 교수는 1965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고 동시에 대불련 구도부에 들어갔다.

김선근 교수는 “1965년 구도순례 이후 대불련 선배들이 봉은사 수도원 생활을 함께 하자고 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광덕 스님의 배려로 스님들과 함께 새벽부터 용맹정진했다. 광덕 스님의 숭신 수범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1967년 대불련 회장을 맡아 군승제도의 추진을 이끌었다. 김선근 교수는 구도부에 군승제도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대불련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결기대회를 개최했다.

김선근 교수는 이때의 정진력에서 1994년 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인도철학회 창립 등 인생의 분기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며 “대불련 출신 중 교수·언론계·법조인·경제인 모임·교육계 모임을 모아 상생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근 교수는 “불공 중에 최고 불공은 사람의 마음을 키워 부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대불련을 향한 마음을 당부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출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자루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모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호텔,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림에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